

교도(교화단) 단계별훈련

박법종 교화상임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머리말

I. 교화단 단계별 훈련의 성립과 과제

1. 교화단
2. 역사적과정
3. 훈련의 중요성
4. 훈련프로그램의 주안점
5. 기대되는 성과
6. 훈련에 필요되는 조건
7. 앞으로의 과제
8. 교화단 단계별 훈련 프로그램 개발 계획표
9. 단계별훈련의 적용대상
10. 교화단 단계별 훈련이행시 협력사항
11. 범위등급과 교도단계별 훈련의 관계
12. 범위등급의 표준

II. 훈련진행 요령

1. 훈련에 대한 준비
2. 진행자의 준비할 요건
3. 훈련을 마무리 하면서

III. 영상교재 개발의 필요성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2. 연구내용 및 방법
3. 연구내용과 연관된 국내외 연구동향
4. 참고문헌
5. 연구의 기대효과와 활용방안

IV. 훈련의 세부요목

머 리 말

이 훈련은 원기 76년부터 임실지역의 건방위 5단 출가 교화단 교무들이 훈련부에서 발행한 4종의무 역할훈련과 신입교도 훈련 교재인 『새희상 만남기쁨』의 책을 받고 교도들에게 맞게 훈련을 실시하고자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시작하였고, 좌산 종법사님과 법타원 김이현 종사님과 좌타원 영산대 총장님께서 교화부장 재직시에 시도 하셨던 교도 단계별 훈련의 뜻을 받들어 직접 문답·감정·해오를 하면서 관타원 이해정 전 교화부장의 성원으로 개발하고 훈련을 실시하면서 임실지역 교도님을 대상으로 4년 동안 만덕산 훈련원에서 교무님들과 전국 교도님들을 대상으로 200여회 훈련을 진행하면서 계속 보완해 왔었다.

훈련한 내용들을 양해관 교무가 체계적으로 정리해 왔었고, 본인은 그림을 통한 교재 개발에 심혈을 기울여 제작해 왔었다. 그러는 가운데 올해는 그동안 못다한 단계별 훈련을 책자로 정리하자는 정도중 교무님의 부탁을 승낙하던차에 수위단 전문위원으로 위촉 받아 논문 과제를 받는 과정에서 이미 「교화단 단계별 훈련」 정리작업을 착수하기로 하였으니 겸하여 이것으로 보고하기로 하여 작업에 들어가게 되었다.

I. 교화단 단계별 훈련의 성립과 과제

1. 교화단과 교화단 단계별훈련의 관계

(1) 교화단 훈련

조직된 교화단원의 체계적인 훈련을 하기 위하여 각 단계별 훈련을 가지고 일정 기간에 정기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 교화단 모임을 통하여 훈련 목적으로 1과정씩 진행할 수가 있다.

(2) 훈련 목적상 교화단 조직

각 단계별 훈련을 받기위한 대상자들을 10명 1 단위로 교화단을 편성하여 실시한다. 교당 교화단에 이미 소속 되어 있거나 결국 교당 교화단에 소속이 된다. 어떤 면으로나 10인 1단의 교화단 목적에 부합된 훈련을 되어야 하고 편성된 교화단

의 역할에 노력을 다해야 한다. 교화단 단계별 훈련은 개인에 있어서는 원불교의 올바른 교도능력을 향상시켜 나아가 점차적으로 지도자로서 역할 할 수 있도록 하며, 교화단의 내실있는 운영을 목적 하고 있다. 앞으로 교화단 단계별 훈련이 발전됨에 따라 11과목을 비롯하여 교법의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훈련이 이뤄지리라 예상한다. 이에 따라 활용범위가 매우 넓어지리라 본다.

(3) 기존 교화단 훈련에 있어서는 근기와 수준이 각기 다르기는 하나 훈련을 통하여 초심자나 아랫 단계에 있는 사람은 공부의 기본적인 자세와 방향을 알게 하며 선행자로부터 응용 및 조언 그리고 은혜받은 체험을 보여줌으로 인하여 공부의 발심을 얻도록하며, 법위의 윗근기에 있는 사람은 알고 있는 공부라 할지라도 다시 점검하고 실행이 모두 되도록 더욱 심화시킨다.

2. 역사적 과정

1) 훈련의 발달과정

(1) 원불교 정전 범위등급에 3급 3위로서 보통급·특신급·법마상전급·법강행마위·출가위·대각여래위를 밝혔으며, 범위승급시 예비 단계를 두어 11단계로 밝혀 실시하고 있다.

(2) 원기 59년 6월 10일 좌산 이광정 교화부장 재직시 교도 기초훈련 3단계과정 발행

(3) 원기 69년도 1월 5일에 법타원 김이현 교화부장 재직시 「원불교 교도 훈련」 기초부·보통부(24쪽). 특신부(27쪽). 상전부(24쪽) 각권의 포켓용 크기의 단행본을 발간하였다.

(4) 원기 77년도에 좌타원 김복환 교화부장 재직시 교화부에서 「교도 단계별 훈련 일정(시안)」으로 보통부(68쪽)·특신부(49쪽)의 책자가 발간되었다. 원기 79년 10월 31일에 신입교도 훈련 교재로 「새희상 만년기쁨」(116쪽)이 발간 되었다.

(5) 원기 원기 76년도 부터 임실지역 교화단 (단원: 정도중, 남궁선봉, 양해관, 박 원도, 송혜자, 허정음, 최인성, 김명정 등)에서 「교화단 단계별 훈련」을 가지고 연구 및 교재제작과 더불어 교당별 교도 훈련을 실시 하였다. 정도중 교무님의 지속적인 추진력과 양해관 교무님의 창작·문서화 작업 그리고 단원들이 수시로 모여 세부적인 연구와 개발에 온갖 노력을 다하였다. 임실지역 교도의 대상으로 보통급부터 훈련을 실시하기 시작하여 기초부, 특 신부, 상전부 순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정도중 교무의 만덕산훈련으로 인 사이동에 따라 만덕산 훈련원에서 전국교도들을 대상으로 200여회의 훈련을 실시 하면서 교구와 교재를 많이 보완하고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훈련이 이뤄 지기 까지에는 정도중 교무님의 원력과 임실지역 교무들의 직접 훈련요원으로 진행과 더불어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로서 만덕산 훈련원의 훈련으로 정착 시켜온 노력의 결과이다.

(6) 훈련을 거듭할수록 시청각, 영상교재 교구의 필요성을 느끼고 박법종 교무와 김보선 대학원생이 90여점의 그림 교재를 시도해 보았고, 성화놀이, 슬라이드, 놀이판 등 다양한 교재교구 제작을 하였다.

(7) 교화부에서는 「교화상황보고서」에 교화단 단계별 훈련 실시사항의 횟수를 기재하는 란을 두어 기재토록 하여 교도 단계별 훈련을 권장하였으며, 교당 나름대로 훈련의 관심이 점차 향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8) 각종 신입교도 안내, 성지안내 및 기타 서적 및 자료도 이에 참고를 하게 되었다.

2) 교화단 단계별 훈련을 계획하게된 동기(임실지역 출가 교화단의 경우) 대종사께서는 「내 법대로만 하면 예전에 상근기가 벽년 걸려서 할 공부라도 나에게 와서 1-2년만 닦으면 그 공효를 이룰 것이다.」(선외록 구도고행 6절)라고 하였고, 앞으로 시방세계 모든 사람을 두루 교화할 십인일단의 단조직 방법을 제정하시고 「이 법은 오직 한 스승의 가르침으로 모든 사람을 고루 훈련할 빠른 방법이니 몇 억만의 수라도 가히 지도할수 있으나 그 공력은 아홉 사람에게만 드리면 되는 간이한 조직이니라.」 하셨다. 교화는 상시훈련법과 정기훈련법대로 하고 교화단 단계별로 하면 교화문제를 해결할 길이 열린다는 확신을 가지고 처음에는 정도중·송

혜자·양해관 교무가 만나 자신과 자신의 교당 교도님부터 안으로는 분별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오독하여 마음의 자유를 얻어가는 재미가 진진한 공부를 하고 밖으로는 교도들이 물물은 바가지 깨 달라붙듯 이 법에 입문하여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심신을 사용하는 공부인이 되도록 교화해 보자는 다짐과 서원으로 교화단 단계별 훈련을 계획하게 되었다.

원기 77년에 금평. 관촌. 임실 교도들이 임실교당에 모여 훈련을 받은후 성과가 있음을 본 임실지역 출가 교화단 교무들이 함께하자하여 출가 건 5단에서 매월 단회때마다 단회날은 모든 일을 모두 처결하여 놓고 각자의 상시일기와 정기일기로 공부한 바를 점검하고 교화단 단계별 훈련 프로그램 개발에 정성을 쏟기 시작하였고, 1년에 한번씩 성지를 찾아 2박 3일씩 기도 하면서 프로그램 개발을 하게 되었다.

정도중 교무는 첫째 상시용용6조로 공부한바를 교당에와서 교당내왕시 6조로 문답 감정 해오를 하는 가운데 교당에서나 정기훈련기관에서 제대로 점검해주고 법대로 인도하기위하여, 둘째는 현장교화가 왜 이렇게 잘 안될까? 교도들은 원불교법이 너무 어렵다고 하고 교무는 교화가 어렵다고 하는데 교화가 재미있고 효과를 얻기 위하여, 셋째는 교무들 자신들이 다른 곳에서 100년이면 할 공부를 우리회상에서는 1년이면 공부길을 잡고 나갈터인데 누구나 바른 공부길의 안내를 위해서이다.

(임실지역 협의회의 경우)

- (1) 교화단교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 (2) 교리를 알기 쉽고 재미있게 익힐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 (3) 자연스럽게 공부길을 잡을수 있도록,
- (4) 원불교의 훈련문화를 비롯한 모든 문화의 정착,
- (5) 정보화 시대에 맞추어 우리것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매체를 개발해야 한다.
- (6) 위에 필요한 이념정립과 바람직한 모델을 개발하기 위하여서이다.

3. 훈련의 중요성

- (1) 훈련을 통해서 교화의 새 기틀을 마련해 간다.(교정 방안 : 2대 설계안)
- (2) 교화는 상시훈련의 관리요, 교화단을 통한 조직관리이다.(정전 훈련법)
- (3) 교도 관리는 재가 교역자의 실다운 역할수행이 관건이라 할 수가 있다. 교무

및 재가 단장 중양 등은 아홉사람에게만 공을 드리면 천만억의 사람도 교화할 수 있다.

(4) 모든 교도는 입교하면서부터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법의 훈련을 받아 실다운 종교인이 되고 회상의 주인이 된다.

(5) 생활이 곧 일상수행이요, 그것이 곧 훈련자료가 되고 교재가 되어야 한다.

4. 훈련프로그램 개발의 주안점

(1) 전 교역자가 훈련 진행 요원이 되어 단장 중양 훈련을 시킨다.

(2) 단장 중양 등 재가 교역자를 훈련진행요원으로 양성하여 자격증을 수여하고 일반교도 훈련진행을 맡게한다.

(3) 년 1회 지구별로 합동훈련을 등급별로 하여 득도식 및 승급식을 성대히 한다.

(4) 각 교당에서는 교화단 대상으로 법회를 이용하여 한 단계씩 훈련을 한다. 진행은 자격을 얻은 단장 중양이 하게 한다.

(5) 교화단이나 마을 법회때 한단씩 소그룹활동으로 문답 감정 해오를 한다.

(6) 역할 실습훈련으로 교화력을 길러 입교 순교등을 확산해 간다.

(7)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발 맞추어 영상, 놀이, PC, 비디오 등의 교재 교구를 계속 개발하여 문화교화를 개척한다.

(8) 법위 11층계의 법의 사다리를 한 층계 한 층계를 밟아 오를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인도해 준다.

5. 기대되는 성과

임실지역 교화협의회의 사례보고를 참고로 하여보자.

(1) 여러교당 교도들이 함께 훈련을 나게 됨으로서 상호간 상승효과(上昇效果)를 얻을 수 있었다. (선의의 경쟁, 다양한 경험)

(2) 주인정신(主人精神)이 고양되고 특히 요인들의 사명감이 높아졌으며 교화단 운영의 구체적인 기술습득으로 역할 수행이 좋아졌다.

(3) 일상수행과 신앙에 있어 길잡는 교도가 늘고, 보은헌공(報恩獻供)등의 액수도 상당히 증가 하였다.

(4) 기초부 과정 교구개발(教具開發)이 높은 평가를 받아 이에 따라 보통부·특신부도 교재교구(教材教具)를 추가 개발 보완 하였다.

(5) 단계별 훈련개발의 상전부 과정이 과제로 남아 있으나 일선 교구와 교당의 요청이 잦아 디스켓 또는 PC통신을 통해 상당수 공급하였다. 다양한 현장연구(現場研究)가 기대된다.

(6) 훈련을 통하여 이상적인 교도의 위상(位相)을 높일수가 있고, 교법의 정립을 통하여 실생활에 교법실천(敎法實踐)을 하는 진실한 교도를 이룰수가 있다.

(7) 단법회나 일요법회 등을 통하여 교도훈련을 시킬수가 있다.

6. 훈련에 필요되는 조건

(1) 과정별 인원은 10인 1단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8-12명 까지도 괜찮다.

(2) 한 단계를 4과정으로 순환시킨다.

(3) 각 방에는 교재·교구 등이 갖추어져 있고, 10명이상 수용할 5개의 방이 있어야 한다.(방이 없을 경우 1. 2과정씩 하는 방법도 있다.)

(4) 새로 교당 건물을 지을때에는 교화단 별로 활동할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지면 좋겠다.교당내왕시 주의사항에 "매 예회날에는 모든 일을 미리 처결하여 놓고 그날은 교당에 와서 공부에만 전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라는 말과 같이 공부할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5) 식사도 간단하게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지면 좋겠다.

(6) 토요일 오후에 들어와 일요일 까지 1박 2일 합숙훈련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지면 사실적 도덕훈련교화에 큰 역할을 할수 있을 것이다.

(7) 정기훈련 기관에서 년 1회씩 단계적으로 훈련한 바를 점점 받도록 하고 범위 사정 자료가 되면 좋겠다.

(8) 훈련진행요원 훈련은 반듯이 훈련하는 장소에서 미리 직접 진행을 해보게 하고 점점한 뒤에 맡게 해야 한다.

(9) 훈련에 필요한 교구교재는 진행 담당자가 반드시 미리 준비해 놓도록 한다.

(10) 훈련 교재나 교구는 훈련 이수자에게만 배부토록한다.

7. 앞으로의 과제

(1) 교화전문 훈련원

ㄱ. 교화단 단계별 훈련을 체계화 구체화 한 시설을 갖추고 훈련 전문 요원을

양 성할 수 있는 훈련원과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구교재를 영상, 그림, 놀이기구로 계속 개발해야 한다.

ㄴ. 행정적으로 교화단 단계별 훈련 이수자에게 수료증을 부여하고 아랫 단계를 지도할 자격증을 부여한과 동시에 범위사정의 자료로 삼는다.

ㄷ. 누구나 여가를 즐기러 왔다가 교법을 알고 스스로 공부할 생각이 일어날 먹거리, 볼거리의 교화 프로그램과 교화장이 마련 되어야 한다.

ㄹ. 지구환경 공해로 건강을 잃고 자연치유를 원하는 현대인들을 수용할 시설과 영육쌍전의 자연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문제들을 해결할 교화전문 훈련원과 훈련연구팀이 구성되면 좋겠다.

(2) 단계별 훈련의 교단적 확산

ㄱ. 교당 신축 설계나 증축 보수 할 때에 교화단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도록 홍보 지도 하였으면 좋겠다.

ㄴ. 모든 교무들이 교화훈련을 이수하도록 교화부에서 적극 뒷받침 해주면 좋겠다.

(3) 훈련기관별 훈련프로그램의 특성화

ㄱ. 교화단 단계별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다 보니 교리는 제법성지에서 10상은 영산성지에서 정기훈련은 만덕산 초선 성지에서 하는 것이 현장감이 있고 역사성과 기운을 느끼고 심화될수 있음을 느꼈다.

ㄴ. 훈련의 대상자와 단계별 이수자에 따라 훈련의 내용이 달라지므로 심화된 훈련내용과 필요한 시설이 요구될수도 있다. 여기에 따라 장소도 달라질수가 있다.

(4) 현장연구의 권장 및 통합활용

ㄱ. 훈련 프로그램 개발자는 교화현장의 경험과 실제훈련의 진행자의 경험을

중요시하여 교법과 접합하여야 하기 때문에 현장교화 경험을 중시해야 한다.

ㄴ. 훈련의 교재는 각분야의 전문성을 발휘해야 하므로 많은 인재와 각기관의 시설과 교단 행정부의 참여와 관심이 중요하다.

ㄷ. 현장교화에 있는 각 교당 및 기관은 연구를 위한 자료정리와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지역협의회 및 교구·교단에서는 현장연구의 지속적인 연구를 위하여 연구비를 책정하고 지원해야 한다.

(5) 훈련지도자의 양성

ㄱ. 예비교역자부터 이 훈련을 실하여야 하며, 교무는 물론 재가교역자들이 스스로 훈련을 진행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ㄴ. 훈련지도자를 양성할 수 있는 전문시설과 전문인을 구성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6) 훈련교재보급

ㄱ. 훈련교재를 개발하는 전문기관이 필요하다. 훈련교재를 개발하는데에는 많은 노력과 특수한 장비등이 필요하게 되므로 한곳에서 만들어 보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ㄴ. 교재만 보급하고 훈련을 받아보지 않으면 교재가 활용이 잘 안되는 경우를 발견할 수가 있었다. 그러므로 훈련과 더불어서 교재를 사용토록 보급하여야 한다.

8. 교화단 단계별 훈련 프로그램 개발 계획표 - 별첨자료

9. 단계별훈련의 적용대상

1) 기초부 I · II

원불교에 인연이 닿는 신도에게 놀이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개별적으로 또는 신

입 단원들과 합류하여 받게 한다.

2) 보통부 I 은 절차를 밟아 입교한 교도에게 . 보통부 II는 보통부 I (보통급 10계와 4종의무)을 3년동안 실천한 교도에게

3) 특신급 I 은 보통급 I · II 과정을 이수하고 3년 동안 이수한 교도에게

4) 특신급 II는 특신급 I 과정을 3년 동안 실천한 교도에게

5) 상전급 I 은 특신급 I · II 과정을 이수하고 3년동안 실천한 교도에게

6) 상전급 II는 상전급 I 과정을 이수하고 상전급 I 과정을 3년동안 실천한 교도에게 각 교화단에서는 수시로 훈련을 통하여 점검하고 새롭게 표준잡고 서원할수 있도록 한다.

*기성 교도들에게도 처음부터 이수 하도록 하는 것이 더욱 좋다.

10. 교화단 단계별 훈련 이행시 협력사항.

1) 기초부 I · II는 훈련 이수후 득도식과 보통급 10계 수여식을 한다. 교당 자체로 할경우에는 4축 2재나 특별행사시 전 교도의 축하를 받을수 있을 때 하고 지구로 연합하여 훈련을 한후 하는 것도 효과 적이다. 득도식후 가능하면 성지 순례를 하고 교화단별로 입단식과 환영식을 하도록 한다.

2) 보통부 I 특신부 I 상전부 I 단계훈련 마친후에는 각 등급의계문 수여식을 한다.

3) 보통부 II 특신부 II 상전부 II 단계 훈련을 마친 후에는 다음급 승급식과 아래급 훈련 요원 자격증을 준다.

4) 훈련은 단계별로 진행하되 개인별로 과정을 정확히 이수 하도록 과정마다 이수 도장을 찍어 주어야 한다.

II. 훈련진행 요령

1. 훈련에 대한 준비

1) 진행자 훈련 및 준비

(1) 책자가 필요할시에는 훈련주관 훈련원에 문의하여 구입하거나 디스켓을 구입하여 내용을 인출하여 교재를 만들면 됩니다.

(2) 진행자를 선정하여 훈련 예행연습을 실제와 똑같이 실시하면서 부족한 점은 서로 보완하여 준다. 그러므로 진행자의 예행연습이 실제 훈련보다 더 길고 진지해질 수밖에 없다.

(3) 진행 과정별 방을 배치한뒤에 방 입구에 과정명을 잘 보이게 붙이며, 전체가 볼수 있는 자리에는 과정별 순환도를 붙여 착오가 없도록 한다.

(4) 과정을 실제로 훈련해보지 않으면 이 훈련을 활용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빠짐없이 훈련을 받도록 한다.

(5) 시간계획을 정확히 세우고 지키도록 함으로서 참석자의 시간의 약속을 침범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6) 모든 용어의 표현을 부드럽고 희망적인 용어를 쓰도록 하자.(사중의무 : 네가지 기쁨.)

2) 교재의 준비

(1) 교재는 훈련을 돕는 좋은 안내자이다. 훈련은 과정의 함축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한정된 말과 제스처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다양한 방법으로 교재가 개발되어야 한다.

(2) 훈련시키고자 하는 세부적인 자세한 내용을 따라 적절한 교재를 개발하도록 한다. 퍼즐놀이. 그림. 만화. 비디오. 카드. 병풍식 퍼즐. 그림 붙이기. 녹음된 노래 및 나레이션. 기타. 등등이 될 수가 있다.

(3) 훈련 자체가 흥미가 있고, 피훈련자로 하여금 부담감이 없이 놀이를 즐기면서 깊은 내용을 쉽게 이해할수 있도록 교재를 준비하여 활용하도록 하면 좋다.

(4) 훈련을 하나의 놀이활동을 통하여 익힐수 있도록 하면, 훈련자의 스스로의 참여와 선의 의 경쟁심을 통하여 이해와 실행이 향상되고, 많은 흥미를 유발할 수가 있다.

(5) 교재의 개발은 먼저 훈련내용의 정확한 표현을 중요시하여 내용이 심분발휘될수 있는 교재를 개발하도록 하여야 하며, 교재 개발자는 훈련의 내용을 잘 아는 진행자이면서 교재의 특성에 따른 전문적인 능력인(또는 어느정도 능력소유)이 개발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원불교의 모든 공부자료는 훈련의 귀중한 자료가 될 수있다.(예/실제의 산예 화. 정기일기. 마음공부한 내용. 신앙담 등) 이러한 자료를 잘 정리하여 글이나 영상매체로 만들어 활용하면 훈련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가 있다.

3) 훈련접수 및 시작전 준비

(1) 50여명(또는 9명 이상)을 기준으로 훈련대상자를 선정하되, 여러 교당과 함께할 경우나 여러 단이 함께 섞어서 하도록 한다.

(2) 명단을 미리 적어서 진행측(또는 담임교무)으로 가져오면 단편성을 하도록 하고, 명찰에 단명과 교당명과 범명을 적어서 가슴에 달도록 한다.

* 단편성은 단원의 숫자가 고르게 짝다.

· 숫자가 많을 경우 명단을 받아서 결제식 뒤에 편성된 내용을 알려 주도록 하는 것도 좋다.

2. 진행자의 준비할 요건

1) 진행자의 수칙

(1) 훈련자로 하여금 듣는 방식은 되도록 지양하고, 스스로 훈련에 참여하여 이끌어 갈수록 진행자의 질문에 대한 의견을 자유스럽고 허심탄회하게 발표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누구든지 지도자가 된다는 심경과 지도자의 자격을 갖춘다는 자세로 임하도록 한다.

(3) 남녀를 섞어서 짝다.

(4) 될수있는대로 좋은 의견이나 알맞는 대답에 나오면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또한 참석자의 믿음이 나도록 유도하고, 스스로 공부할수 있도록 공부심을 북돋아 준다.

(5) 생동이라고 불리는 초입자는 질문과 놀이에 버거워 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때에 따라서는 먼저 기본이 되는 설명을 곁들일수가 있고, 놀이를 쉽게 이해될수 있는 그림·설명 등의 자료를 이용하거나 할 수가 있다. 이들을 위하여 훈련에 오기전에 과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여 어느정도 준비가 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6) 마지막에는 과정이수에 대한 스탬프 도장을 찍어준다.(기초부 5과정일 경우 각 확인란에 도장을 받아 5과정을 돌고 오면 : □거듭난 기쁨)

2). 진행방법

(1) 모든 질문에 있어서 먼저 말을 열어 분위기에 도움을 줄만한 사람을 선정한다. 단 답변이 길어지거나 방향이 틀어질 경우 즉시 부드럽게 재제 한다.

(2) 질문에는 전체가 다 들어야 할것이 있고, 몇몇 사람만 들어도 될것이 있다. 이는 분위기나 상황에따라 구분 하도록 한다.

(3) 진행은 상대방의 수준에 따라 다양해져야 한다. 형식을 이해하는 교도에게는 내용을 묻고, 내용을 이해하는 교도에게는 내용을 설명하게 하며, 설명이 가능한 교도에게는 더욱 심화된 질문을 던진다.

(4) 질문에 대한 경중을 헤아려 가볍게 다루어야 할 질문도 있고, 세세히 모두에게 물어야할 질문도 있다. 이를 잘 구분하여 시간에 쫓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진행자는 교육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과 신념을 심어주도록 한다. 그들이 내용을 이해하고 올바른 방향을 잡아서 스스로 훈련될 수 있는 힘과 자긍감을 얻도록 해야한다.

(6) 진행자는 담당한 과정을 깊이있게 준비를 철저히함으로서 피훈련자의 다각도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 올바른 방향제시를 위해서 나름대로 체계적인 이해와 노력이 필요하다.

(7) 교재와 내용을 충분히 준비하자.

(8) 훈련 참가자의 수준은 각기 다르다. 그들의 각기 다른 사회경험·교육정도·원불교의 이해의 차이·특성에 따라 여러가지로 가르치는 법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사람의 대상에 따라 같은 내용을 가지고도 조금씩 설명이 달라져야 한다.

(9) 성인들의 교육훈련이 되기 때문에 문제중심·경험중심으로 이끌어 나가고 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10) 회화시에는 회화시 주의 사항을 참고하여 진행한다.

(11) 훈련생들이 부담없이 서로 이야기 할수 있도록 회화 형식으로 진행한다.

(12) 서로간의 이해도를 높일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여 진행한다.

(13) 회화에서 지도하기 어려운 내용은 강의형태를 취하여 지도한다. 강의시 분위기가 딱딱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어렵지 않게한다. 많은 내용을 지도한다는 생각은 버리고 꼭 필요한 내용만 추려 지도한다. 적당한 질문과 시청각자료(사진, 영상.

그림 등)을 첨부하도록 노력한다. 강의시간은 10분을 넘지 않도록 한다. 10분 이상이 될 때에는 내용을 구분하여 두 번 진행한다.

3) 진행방법에 대한 성인지도(안드라고지)의 참고

· 여기에 참고된 내용은 이러한데에 관점을 가지고 진행하면 훈련이 효과적일수가 있다는 말이다. 훈련의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가 있다.

3. 훈련을 마무리 하면서

- 1) 먼저 훈련받은 교도들로부터 훈련소감 발표를 듣도록 한다.
- 2) 진행자의 평가회 및 다음 단계 준비모임을 갖는다.

Ⅲ. 영상교재 개발의 필요성

1. 研究目的 및 必要性

원불교 교화 및 훈련은 교화단 조직으로서 사실적 도덕훈련을 하도록 되어있으며, 교화단 훈련에 알맞는 여러 가지 안내서와 자료가 나와 있으나 아직은 사실을 교재로한 체계적인 정착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며, 훈련교구 및 교재는 개발이 시급한 상태이다.

교화단 단계별훈련 연구원들은 오랜동안 교화단 단계별훈련을 실시해오면서 교화단 단계별 훈련을 정착화 시켜가고 있다. 그러는 가운데 여러 가지 교재교구를 만들어 실시해오면서 영상매체 교재의 중요성이 매우 큼과 동시에 교재교구 가운데 영상자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수가 없었다. 또한 일반사회는 영상매체의 급격한 발달로 사람들의 수준과 인식이 달라진만큼 구태연한 그동안의 글과 언어의 한정된 훈련과 학습으로는 한계점에 이미 도달하여 있는 상태이다 특히 신입교도를 위한 교도기초 과정에 필요한 안내자료의 하나인 원불교 성지안내와 의식 및 예절안내의 영상자료 제작은 이들에게 알기 쉽고 편안하게 원불교의 기본적인 이해를 돕는데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들이다.

지금 제작하고자 하는 영상 자료는 교화 및 훈련용으로서 원불교의 올바른 이해와 성자의 혼과 얼을 체받도록 하며, 원불교 교도로서의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예절을 익히는데 그 목적이다.

2. 研究의 期待效果 및 活用方案

1) 각 교당에서 교화단 훈련을 하는데 있어서 실제로 가장 시급하게 활용된다. 많은 교당에서 교재 교구가 없어서 제대로 훈련을 못하거나, 성숙화된 훈련 프로그램과 자료부족으로 교화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으므로 숨통이 된다.

2) 재가 교역자 양성 · 재가 교도훈련 · 기성 교역자 교화교육 · 예비교역자 교화 프로그램 형성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3) 교화단 단계별 훈련에 있어 중요한 교재로 활용된다.

4) 교도훈련이 정착화됨에 따라서 질 높은 교도로 향상시킬수 있으며, 교단의 법위사정의 기준이 설정된다.

5) 비디오를 제작함으로 인하여 교당은 물론 차량 안에서, 가정에서 등 비디오가 설치된 모든 곳에서 쉽게 사용할 수가 있다.

